



의심과 생각 자체가 그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2부)

| 해연 | 오인회 편집부 인터뷰 |

해연解緣 님은 서울에서 차와 도자기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기 공부는 2013년 말에 처음 접했습니다. 이전에도 마음공부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체로 '나'를 강하게 만들고 확장하는 방식이 위주였습니다. '내'가 힘과 능력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갈망이 기저에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그런 공부 방식에서 별 소득이 없었고 답답하고 막막한 시기를 보내다가 깨어있기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강한 끌림을 느꼈고 곧 이어 강좌를 듣고 오인회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의 흥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깨어있기의 연습방법들과 뭔가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조급함 등으로 공부와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월인 선생님의 오인회 강의는 꾸준히 들으며 끈을 놓치는 않았는데, 결국은 이 공부에서 떠날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슨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깨어있기 공부의 방법과 과정에 익숙해졌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즈음에 깨어있기 강좌를 다시 들었고 이전보다 심도있게 공부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월인 선생님과 문답 형태로 진행되는 오인회모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는 올해 초부터 진행된 마스터과정에 참여하면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깨어있기 과정에 참가했을 때 별명을 짓게 되었고 그때 무심코 떠오른 이름이 해연解緣이었습니다. 꼬인 실타래가 풀어지듯 인연으로 얽힌 서로가 자유로워지기를 구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영켰다는 생각을 떠나면 처음부터 영킴은 없는 듯합니다. 빈틈없이 완전한 흐름 속에서 영킴이라는 생각과 느낌마저도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월인 선생님과 깨어있기를 만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편집부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는 다른 오인회원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적용해 와 닿은 그것을 통해서 점점 받아들인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알아채진 것이군요.

해연 네. 알아채진 것이 맞지만, 그래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직 그 비개인적 주제로 중심이 확고하게 옮겨갔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집부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점점 수용되면서 점점 확고해지는 과정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전에 사실 ‘나’라는 것이 분명한 ‘느낌’이라면 주체 입장으로 가야 되겠지요. ‘나’란 것을 느끼게 된 것은 언제쯤인가요?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나요?

해연 이 공부에서는 나와 주체를 구별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구별이 좀 낫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를 하나의 느낌으로 보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느끼다’ 하는 것이 처음에는 저한테 좀 막연한 과제 같기도 했었는데요. 대상을 느낌으로 파악하는 감지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느낌으로 의식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대상에 대한 느낌이 내 밖에 있다고 할지 또는 안에 있다고 할지 구분이 안 된다고 느껴지던 때에, 나라는 것도 그런 느낌의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의식된 것 같습니다. 나라는 느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하게 경험되는 하나의 느낌이거든요. 나라는 느낌은 지금 무엇과 동일시되었는가에 따라서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대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 앞에 나무빛이 있는데 이것을 빛으로 보게 하는 과거의 경험과 정보에 동일시되어 내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편집부 나무빛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해연 만약에 제가 빛이라는 물건을 처음 봤다면 지금처럼 느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제 눈의 감각기능이 다른 동물의 눈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형태나 색깔, 질감이 다 다르게 느껴지겠죠.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 빛을 이런 형태와 질감으로 보게 하는 그 어떤 기준이 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편 이 때의 나라는 느낌은 이 나무



빛이 주는 느낌에 물들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특별한 대상의 느낌이 없이 경험되는 투명한 존재감이 내가 투명한 느낌에 물든 것으로 느껴지는 것처럼요.

편집부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아니라 느낌으로 잡히기 시작했던 건가요?

해연 감각적인 대상을 경험하고 있을 때의 나라는 느낌, 어떤 감정 상태를 경험하고 있을 때의 나라는 느낌, 특별히 경험되는 외적인 느낌 없이 그냥 비어 있는 상태일 때 나라는 느낌. 나라는 느낌은 이렇게 딱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편집부 나라고 여겨지는 다양한 마음의 느낌을 발견하기 시작했네요? 그 나라는 느낌들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지요.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연습을 한 건가요?

해연 네. 일상에서 반복되는 평범한 시간에 연습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익숙했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보이는 것들, 여러 소리들을 대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길거리의 다양한 소음들이 몸의 어떤 부분에 진동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보면 소리가 밖에서 온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내 몸에 접한 어떤 에너지 흐름들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그 소리가 시각적인 대상과 연결되면서 ‘이 소리는 저 차에서 나오는 소리지.’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소리가 달리는 저 차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다보니 사물의 실체성이란 것이 생각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런 연습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실제 경험과 생각은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의 작용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야 지금 흐르고 있는 경험 자체가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부 진정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와서 경험, 즉 느낌에 대한 경험에 집중될 때인데, 이제 마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군요.

해연 감지 연습을 해도 생각이 자주 끼어들고 또 끼어든 생각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연습을 반복하면서 생각을 구별하고 그걸 빼내는 것이 좀 더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편집부 어떻게 생각을 구별하고 빼낼 수 있었지요?

해연 지금 경험되는 느낌에 호오의 판단이 붙어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생각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후 느낌 자체에 집중하다보면 이름도 잊혀지게 되고요. 실제 연습에서는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분별할 수 있게 되면,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 두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편집부 생각은 그냥 생각대로 두고 집중을 한 것이군요. 그렇게 감지 연습들이 경험과 느낌에 집중하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느낌이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와 닿기 시작한 것인가요?

해연 네,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많이 생겨난 것 같고요.

편집부 왜, 그 과정이 심리적 안정감을 이루게 해준 건가요?

해연 나라는 것을 느낌으로 자꾸 보게 되면서, 감정의 파도에 에너지가 잘 안 가는 거죠.

편집부 예전 같으면 어땠을 것인데 ‘나’를 느낌으로 보면서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요?



해연 예전에는 제 기준에 안 맞는 상황을 만나면 일단 꼭 참게 되는데, 그러면 해소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상황을 대했을 텐데 지금은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생겨나는구나’, 혹은 ‘지금 나라는 느낌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쪽으로 힘의 중심이 옮겨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감정과 판단에 집착하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 자체가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도 그 나빠진 기분이 길게 가려면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주고 그걸 계속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편집부 그렇지요. 그리고 대부분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해연 무의식적일 때는 그래서 길게 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많이 짧아진 거죠.

편집부 자꾸 의식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것인가요?

해연 네. 그러면서 일상에서 심리적인 편안한 안정감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편집부 어느 시점부터가 손님들을 대할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빨리 흘려보내고 편해진다고 했지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해연 ‘예를 들면 손님이 “이 집 차는 안 좋은 거 같아. 맛이 없어” 그러면 저는 속으로 ‘시비 걸러 왔나?’, ‘이 사람이 뭘 알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기분이 탁 나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뭔가 속에서..

편집부 올라오지요?

해연 뭔가 속에서 밀쳐내려는 힘이 올라오죠. 그렇게 그것이 확인되면 ‘아, 이분이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겠다.’하며 이제는 질문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상대를 살펴보게 됩니다.

편집부 옛날에는?

해연 옛날 같으면 속에서 탁 올라온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저도 말이 곱게 안 나가고, 뭐 “맛없으면 가세요.” 이런 식으로 했겠죠.

편집부 아, 그렇게도 했어요?

해연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웃음)

편집부 (웃음) 그렇구나.

해연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악의를 가지고 찾아 와서 뭔가 화풀이를 하려는 분한테 그렇게 한 적은 있지만, 요즘 같으면 그렇게 오신 분이라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편집부 어떻게요?

해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차근차근 캐보는 거죠. 답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기도 하구요.

편집부 아, 알아보려는 건가요?

해연 네. 그리고 대부분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풀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좋게 보면 그것으로 끝일 텐데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더 확인하고 싶은 뭔가가 있거나, 나빠진 기분이나 감정을 해소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냥 걸으면서 보이는 것들, 여러 소리들을 대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연습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실제 경험과 생각은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의 작용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야
 지금 흐르고 있는 경험 자체가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부 전에 같으면 ‘차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하면 기분이 확 나빠져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거나 어떻게 멈추거나 하는데, 그렇게 된 ‘나’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기분 나쁨’이 의식됐던 건가요?

해연 네, 의식되는 순간, ‘이것은 살피서 좀 잘 풀어 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옮겨 가요.

편집부 상황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고, 자기를 보는 그 마음은?

해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에너지에 끌려가지 말고 ‘상황을 잘 풀어보자’라는 생각과 의도가 일어나면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러면 밀쳐내려고 했던 그 힘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몸으로도 드러납니다. 거부하고 밀쳐내려는 힘이 커지면 벌써 표정이 굳어지고 팔과 어깨가 긴장되어 뻣뻣해진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거부하려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감정이 더 커지지 않고 작게 머물러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 전체적으로 퍼지는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표정도 편해지고 편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제 경우는 이렇게 ‘일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 같아요.

편집부 그렇지요, 일상에서 자꾸 마음을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해연 예, 그렇지만 대부분 다 좋은 손님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아주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몸도 더 자주 불편하니까 차를 마셔서 몸을 좀 개선해보려고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거부감 없이 차에 관심을 갖고 즐겨마시게 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어요. 제 가게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최대한 좋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제 일을 잘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잘 하려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향성이나 감정을 극복해야 됐고, 이 공부가 그런 측면에서 결정적으로 일의 숙련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편집부 일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 마음을 보는 것에도 도전이 되어서 도약이 일어날 수 있었겠네요. 그렇게 일상에서 나라는 것을 느낌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나의 습관적인 대응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 준 건가요?

해연 네.

편집부 그래서 편해진 거고요?

해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풀어야 할 문제는 남지만 그것을 걱정거리로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편집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요?

해연 걱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각’이고, 그것이 실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편집부 생각을 느낌과 분리시키면서부터 걱정도 많이 줄었겠네요?



해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경험과 생각을 분리해야 된다는 자각이 드러났던 것이 저에게 되게 컸어요. ‘아! 이진 정말 분리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라는 것이 많은 착각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엄청나게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편집부 그것이 강하게 온 것이 언제지요?

해연 한 순간에 탁 왔다기보다는 나를 보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이 차츰차츰 구별되었는데요.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왜 이렇게 내가 거기에 얽매어 있을까? 생각은 그냥 지금 ‘경험에 대한 해석’일 뿐인데, 다양한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내린 하나의 해석을 그 경험 자체인 것처럼 그 생각을 쥐고 있는 것이 차츰차츰 명확해졌던 거였죠. 그 과정에서 감지 연습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편집부 다시 돌아가서, ‘나’라는 것을 느낌으로 파악하면서 일상이 편안해졌고 그 이후로는 걱정도 크게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지요?

해연 오인회모임에서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이 이 공부의 목적은 편안함을 얻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었고, 막연하지만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한 추구도 이후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체도 대상과 함께 나타난 것인데 그러면 나타나지 않을 땐 뭐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나인데 이 나가 없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걸까? 없어지면 안 될 거 같은 생생한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가, 그렇게 보고 있는 주체에 의해서 생겨난 건데 그렇게 보고 있는 주체마저도 나타난 거라면 이 세계는 도대체 뭘까? 이런 식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생각들이 자꾸 일어났고, 오인회모임에 참

여하고 요가수트라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해결해야겠다, 뭔가 좀 끝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편집부 그래서 주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된 때는 언제쯤이고, 어떤 과정이었나요?

해연 아까 반여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는 그것을 어떤 실마리로 삼아서 계속 저에게 대응했던 거 같아요. 나라는 느낌이 생기고, 뭔가 어떤 내적인 느낌이 강하게 생길 때마다 ‘아, 이것 다 보여지고 있구나’ 혹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 자각들이 자꾸 자꾸 쌓였어요. 쌓이면서 젖어 들었다고 해야하나. 어떤 것에도 몰들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비개인적인) 주체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이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편집부 나라는 것마저도 나타나는, 나라는 것마저도 알게 되는, 그 알지 못할 주체네요?

해연 네.

편집부 그 주체를 직접 잡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나라는 느낌이나 다른 대상의 느낌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걸 인식하게 해 주는 그 무엇, 그런 것이 점점 분명해진건가요?

해연 나를 대상으로 자꾸 확인하려는 그 연습이 자연스럽게 주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어떤 중심 혹은 거기에 뭉쳐져 있는 힘이 차츰차츰 빠지면서, 나를 지켜보고,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구나, 경험되고 있구나’ 하고 확인된 거죠. 예전 같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있는



데’ 이랬죠. 처음에는 주체가 따로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응했었거든요.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나의 의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뭐가 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나?’ 그렇게 정말 속에서 받아들여졌었어요. ‘주체라는 건 그냥 어떤 생각 아니야?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바뀐 거죠.

편집부 그렇군요. 그래서 그 주체에 대해 좀 더 할 이야기가 있나요? 좀 더 분명해지거나 그것에 대한 명료함, 이런 것들이 자리잡게 되는 과정이나 계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져온건가요?

해연 저는 어떤 특별히 강렬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서서히 보는 관점이 바뀌어 갔던 거 같아요. 하나의 아이디어에 탁 꽂혀서 그 관점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고, 경험이 쌓이면서 ‘아, 그게 맞구나’ 하는 것이 속에서 일어나고, 의심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집부 그래도 그것이 진해지는 시기가 그래도 왔을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주체에 대한 의심이 없는 시점이라고 할 만한...

해연 의심이 생겨나고 ‘과연 그런 걸까?’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 의심과 생각들이 드러나고 있고 보여지고 확인된다는 것이 계속 명확해지는 거예요.

편집부 (웃음) 그렇지요.

해연 그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편집부 그렇지요. 더 이상 없지요. 의심 같은 것 자체가 그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해연 네, 의심이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 주체에 대해서

는 의심이 없었는데 뭔가가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아 뭐지 답답하네..’
그러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탁 깨어나듯이..

편집부 풀려나지요? 생각의 내용에 있다가 ‘내용이 드러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순간 내용에서 빠져나오는 거지요?

해연 네, 주체를 확인한 초기에는 의심과 거기에서 풀려나는 과정이
자주 반복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

편집부 자동적으로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린 건가요?

해연 그것이 한 몇 달 됐던 거 같아요.

편집부 그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주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나요?

해연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맞는 걸까?’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
면 선생님께서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다시 살펴보고 숙고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나를 벗어나서 보는 입장
이 되도록 한 것 같습니다.

편집부 그렇군요. 그러다가. 지지난 주인가, 뭔가....

해연 예, 그러다가 ‘상태’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접하게 됐는데요.

편집부 무슨 말인가요?

해연 지난주 요가수트라 강의에서 그리고 그 전 주에 오인회에서 마음
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험하는 것은 다 하나의 마음의
상태이고, 그 상태가 상태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본원적이고 드러
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변화하면서
나도 나타나고 세계도 나타나게 되는 근원이라는 내용인 것으로 기억



합니다. 오인회모임이 있는 날이면 좀 앉아서 책도 보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도 생각하고 또 연습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할 것 없으면 좌선 비슷하게도 해보고 하는데, 그날은 존재감 느끼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편집부 지지난 주인가요?

해연 네, 지지난 줍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앉아있는데 멍하게 있다가 또 뭔가 비어있는 투명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드러나는 것들이 다 마음의 상태’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인회 시작 전에 제가 경험한 것, 어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경험인데, 방에 앉아서 방에 있는 나를 느끼고 있다가, 또 좌선을 하면서는 그 전의 느낌이 사라지고 마음에 텅 빈 느낌들이 이어서 경험되는 것과 관련되면서, ‘마음의 상태’라는 말이 큰 울림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해져 있는 어떤 대상과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의 경험이 다른 경험으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방에 앉아있는 나를 경험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라고 특별히 할 것이 없는 텅 빈 느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걸까? 그런 의문이 올라왔습니다. 주의라든가 또는 의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동일시되는 내용이 달라지고 경험하는 것들도 달라지는데 과연 무엇이 있어서 그 모든 변화들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예전에 많이 하셨던 비유를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손은 움직이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손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지만 이 모습의 손도, 저 모습의 손도, 다 손

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탁!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지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벡터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생각이 가리지만 앎는다면 우리는 이미 미지에 뿌리를 박고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어떤 것도 드러날 수 없으니까요. 또 그런 것들이 다 벡터라는 말씀도 많이 와 닿았습니다. 텅 빈 상태에서의 벡터 상태와,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대상들이 나타나고 내가 생기고 했을 때의 벡터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힘들의 작용이라는 것...

편집부 텅 빈 상태도 하나의 벡터지요?

해연 네. 텅 빈 상태는 뭔가 잔잔한 어떤 힘이 균일하게 퍼져 있는 느낌이고요. 또 대상이 드러날 때는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벡터의 느낌이 순식간에 바뀌는데요. 그런데 벡터 이전에 아직 방향을 가지지 않은 힘, 그것이 가득한데, 그것이 방향성을 가질 때마다, 대상도 나타나고 나도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안다·모른다는 것은 마음의 아는 작용으로서 주체가 작동될 때 얘기할 수 있는데, 미지라는 것은 주체마저도 상태로 드러나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안다·모른다 또는 미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것을 ‘미지에 대한 앎’ 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앎’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편집부 나타날 수 없는 거지요.

해연 네, 나타난다면 이미 늘 있는 그것이 아닐뿐더러, 어떤 식으로든 파악된다고 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상으로 드러난 대상인 것이죠.



편집부 지금은 어떨지요?

해연 저의 공부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꽃히기는 하는데요. 그런 계기들이 확 뒤집듯이 드라마틱한 변화로 이어져서 일어나지는 않고, 다만 꽃힌 것이 차츰차츰 확고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저도 모르게 더욱 그쪽으로 옮겨 가게 되는.. 비개인적 주체를 파악하는 단계까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패턴인 거 같아요.

편집부 그렇군요.

해연 뭔가 좀 크고 재밌는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서는 또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웃음).

편집부 (웃음) 큰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이제 상관없어졌어요?

해연 네. 물론 그런 것이 있다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진실이라는 것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편집부 큰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역시 ‘나타난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건가요?

해연 네. 그러면서도 한편은 ‘미지에 뿌리박는 마음’,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도 나타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편집부 알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해연 감사합니다. (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